

논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장 의 성(목사, 전남 고흥중앙교회)

목회자가 논어를 읽을 때 전체 20편을 똑같은 비중을 두고 읽을 필요는 없다. 마치 구약성경 예언서를 읽더라도 나훔이나 오바댜 보다는 이사야 예레미야에 더 비중을 두고 읽듯이 논어에서도 그냥 대충 넘어 가도 좋은 부분이 있고 정밀하게 읽어야 할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3편 팔일 이나 5편 공야장, 6편 옹야나 8편 태백, 10편 향당이나 11편 선진은 그리 세심하게 읽을 필요는 없다. 이들에서는 한두 군데 주의 깊게 새겨들을 만한 문장들이 나온다. 예를 들어 팔일 편에서는 13장 후반부에 나오는 획죄어천 무소도야(獲罪於天 無所禱也)란 글귀는 유명한 공자의 신앙고백이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내용이다. 여기서 하늘이란 자연계의 하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늘 곧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라는 말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공자의 깊은 경외심을 엿볼 수 있다.

공자는 팔일 12장에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러져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과 흡사한 말을 남겼다. 제여재 제신여신재(祭如在 祭神如神在) “제사는 있는 것처럼 해야 하는데 제사를

지낼 때는 신이 계신 것처럼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면서 오불여제 여불제(吾不與祭 如不祭)라고 하였다. 즉 이 말은 “내가 제사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과 같다”는 뜻이다. 아무리 수만의 양을 제사지내도 내 마음이, 내 정성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팔일에서는 12장과 13장이 가장 중요하다.

공야장에서는 11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서 자공이란 제자가 하는 말이 남이 나에게 좋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므로(我不欲人之加諸我也)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으려고 한다(吾亦欲無諸人)는 대목이 나온다. 이 말은 공자의 저 유명한 물시어인(勿施於人)의 정신이다. 위영공 23장에 보면 자공이 일평생 지켜야 할 말을 한마디로 요약해 달라(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는 주문을 공자에게 한다. 그러자 공자는 그건 바로 서(恕)! 서라면서 서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己所不欲)은 남에게 하지 않는 것(勿施於人)이라고 잘라 말한다. 필자가 이 말을 들은 것은 20대 초반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그 때의 감격과 충격은 지금도 새롭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많이 들어 본 말씀이 아닌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7:12).

내가 남에게 받기를 원치 않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는 공자의 정신과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사이에 뭔가 닮은 꼴이 있지 않는가? 다만 공자는 남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부정문을 사용했고 예수님은 대접하라는 긍정문 형식을 빌려 말씀했을 뿐 내용상의 차이는 크게 없다. 그런데 공자가 일평생 추구한 한 글자 서(恕)는 파자(破字) 풀이를 하면 재미있다. 서(恕)는 같을 여(如)와 마음 심(心)의 합성어이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 서(恕)인데 무엇이 같은 마음이나면 남을 나와 같이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서(恕)란 한 글자에 담겨져 있다. 즉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서(恕)이다.

옹야에서는 유명한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知者 樂水)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 한다”(仁者 樂山)는 말이 옹야 21장에 나온다. 지혜로운 자는 왜 물을 좋아한다고 했을까 싶는데 물이 낮은데로 흐르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물에서 겸손을 배운다는 뜻에서 이런 말이 생기지 않나 싶고 어진 사람이 산을 좋아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사실인 것 같다. 등산을 하다 보면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하 사람이지 악한 사람은 별로 만나 보지 못했는데 인자 요산(仁者 樂山)이란 말이 공감간다. 한편 옹야 25장에는 군자란 학문을 널리 배우고(君子博學於文) 예절로써 자기를 제약한다(約之以禮)라고 하여 글을 아는 것 못지 않게 예절을 강조한다.

논어 8편인 태백에는 그저 14장과 17장 정도가 중요한 것 같다. 14장은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不在其位) 그 정사를 피하지 말라(不謨其政)는 말씀인데 어떤 위치에 있지 못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폄론하지 말라는 뜻이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을 놓고 이러니 저러니 말들이 많지만 막상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아 보면 더 나은 것이 없는 경우가 많다. 옆에서 훈수 두기는 쉬워도 직접 장구나 바둑을 두는 것은 쉽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을 삼가라고 하셨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7:1-2). 그리고 태백 17장은 학여불급 유공실지(學如不及 猶恐失之)인데 “배움에 있어서는 미치지 못한 것 같이 하고 (배운 것은) 잊을까 두려워 하라”는 뜻이다. 배우는 것은 끝이 없기에 늘 겸손하라는 뜻일 것이다.

향당은 공자의 일상생활이 어떠했는지 그 면모를 잘 보여 준다. 예를 들어 8장에 보면 공자가 얼마나 음식물 관리를 철저히 잘 했는지 보여 주는데 아마 그래서 공자는 70이 넘게 그 당시로는 장수한 모양이다. 다만 주량은 좀 섰던 모양인데(唯酒無量) 예수님도 술(포도주)을 즐기는 자로 비난을 받았고(마 11:19 참조) 소크라테스 역시 밤새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멀

평하였다(플라톤의 향연 참조). 또 향당 12장에 보면 한 번은 마굿간에 불이 났는데 “사람이 다쳤느냐고만 묻지 말에 대해서는 일체 물어 보지 않았다”(傷人乎 不問馬)는 데서 재산보다 인명을 더 중시하는 공자의 인간존중 사상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9장에는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으셨다(席不正 不坐)라는 말속에서 왜 공자가 한 자리 차지 못하고 천하를 떠돌아 다녀야 했는지 알 만한 대목이다. 아무 자리나 자리라면 덩석 주저앉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한 자리 차지하려고들 얼마나 치열한가? 석부정 부좌의 정신이 아쉽다.

11편 선진에서도 두어 군데 정도가 중요한데 11장에서 “아직 삶도 모르는데 죽음에 대해 어찌 알리오”(未知生 焉知死)는 공자다운 말이다. 공자는 일찌기 위정 17장에서 “아는 것을 안다고(知之爲知之)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不知爲不知)고 하는 것이 아는 것(是知也)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그 말 그대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했지 결코 아는 척 하지 않았다. 그래서 계로라는 제자가 죽음에 대해 묻자(敢問死) 지체 없이 삶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 알겠느냐고 반문하였다. 그런가 하면 선진 15장에서 자공이란 제자가 자장과 자하중 누가 더 현명하냐고 묻자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모자란다고 공자가 대답한다. 그러면 자장이 자하보다 낫겠습니까라고 자공이 다시 묻자 공자는 “지나치는 것이나 모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라고 하여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생겨났다.

이처럼 논어에는 팔일, 공야장, 옹야, 태백, 향당, 선진과 같이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읽을 부분이 있고 4편 이인, 12편 안연, 13편 자로, 14편 현문, 15편 위영공과 같이 비교적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니 해도 필자가 보기에는 12편 안연이다. 안연에는 공자의 핵심 사상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등장한다. 우선 1장에는 인에 대해 묻는데(問仁) 공자는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克己復禮爲仁)라고 대답함으로 유명한 극기복례란 말이 나온

다. 또 3장에서 다시 인에 대해 묻자 “어진 사람은 그 말을 참는다”(仁者 其言也訥)고 대답하여 어진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예수님 역시 언어의 과대 포장을 경계하여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마5:37) 하셨는데 인간성 회복은 언어의 진실성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또 4장에서 군자에 대해 묻자(問君子) 군자는 불우불구(君子不憂不懼), 즉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아들, 군자는 근심할 것도 두려워 할 것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14:1) 하셨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10:28)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근심도 두려움도 없음을 말씀하셨다. 그런가 하면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묻자(問政) “임금은 임금다와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와야 하고 부모는 부모다와야 하며 자식은 자식 다와야 한다”(君君臣臣父父子子)라고 간단명료하게 대답한다. 모든 문제는 기본이 잘못되어서 파생되어서 일어난다. 그래서 군자는 근본을 바로 잡기에 힘쓴다(君子務本-학이 2장).

또 17장에서는 다시 정치에 대해 묻자(問政) “정치란 바로 잡는 것”(政者 正也)이라하여 또다시 간단명료하게 정치에 대해 정의를 내린다. 아! 정자 정야(政者 正也)란 이 말이 20여년 전 군부독재 시절 정의감에 불타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가슴을 뜨겁게 했는가. 이 정자 정야(政者 正也)란 이 한마디 말에 유신을 반대하게 하고 신군부의 권력찬탈에 저항하게 만들었지 않았던가? 공자는 이렇듯 진리를 가장 단순한 언어로 표현하는 언어의 마술사이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22장에서 인에 대해 묻자(問仁) 예외없이 공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愛人)이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내린다. 예수님 역시 율법이 무엇이냐고 율법사가 묻자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

랑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하셨는데 이런 점에서 공자나 예수님이나 다 단순화(單純化)의 대가(大家)들이다.

그밖에도 안연 편에 나오는 중요한 장은 7장과 16장이다. 7장은 어느 날 자공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는 식량(食)과 군대(兵)와 백성의 신뢰(信) 세 가지를 든다. 그때 자공이 만일 부득이 하나를 포기한다면 무엇을 포기하냐고 묻자 제일 먼저 군대를 포기하고 그 다음 식량을 포기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라고 하여 신뢰의 중요성을 말한다. 또 16장은 군자와 소인의 비교인데 군자는 다른 사람의 장점은 키워 주고 단점은 보완해 주지만 (君子 成人之美 不成人之惡) 소인은 그 반대(小人 反是)라고 한다. 다른 사람의 장점은 보지 못하고 단점만 지적하려는 바리새적 기질은 다 소인배에 속한다.

다음으로 4편 이인(里仁)에도 중요한 구절이 많이 나온다. 우선 3장에 보면 “오직 어진 사람만이 능히 사람을 좋아 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다”(惟仁者 能好人 能惡人)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해 관계로 할 것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의 관점에서 인간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 8장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朝聞道 夕死 可矣)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을 만큼 너무도 유명한 말인데 진리를 사랑하는 구도자의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인 11장의 군자는 회덕(懷德)하고 소인은 회토(懷土)한다든가 16장의 군자는 유어의(喻於義)하고 소인은 유어리(喻於利)한다는 말씀에 대한 해석은 이미 지난 『농촌과 목회』 여름호에 언급을 했으며 24장의 “군자는 말을 더듬더라도 행동은 민첩하고자 한다”(君子 欲訥於言而敏於行)란 말도 마찬가지다. 다만 15장에서 공자는 자신의 도가 하나로 관통되었다는 소위 일이관지(一以貫之)를 말할 때 그 말을 들은 제자 증자는 그 일이관지를 충(忠)과 서(恕)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서 서(恕)는 앞에서 말했듯이 같을 여(如)와 마음 심(心)의 합성어로 서

로 사랑으로서 이웃 사랑으로 본다면 충(忠)은 가운데 중(中)과 마음 심(心)의 합성어로 마음과 뜻, 곧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으로 재해석해 본다. 즉 공자의 충(忠)과 서(愨)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또 다른 표현으로 해석해 봄이 어떨까 싶다. 그러면 공자가 과연 하늘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았는가 하는 문제는 헌문 37장이 대변해 준다. 공자는 논어 곳곳에서 당대의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을 한탄하였는데 (『농촌과 목회』 통권 9호 참조) 자기는 사람들이 비록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不怨天)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不尤人) 하면서 나를 알아주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라고 말한다(知我者 其天乎). 나를 알아주는 인격적인 하늘이신 하나님이 있기에 공자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다. 그 외 헌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들은 24장, 29장, 30장, 32장 등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설명은 이미 전에 한 바 있기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15편 위영공이다. 이 위영공 편도 중간 중간에 많이 언급되었기에 지면상 중복은 피하기로 하고 다만 8장에 나오는 인에 뜻을 둔 지사(志士仁人)는 몸을 죽여 인을 이룬다(有殺身以成仁)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자기 부정의 정신에 대한 공자식 표현을 보게 된다. 또 11장에 나오는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人無遠慮) 반드시 가까운 장래에 근심이 있다”(必有近憂) 같은 말과 29장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으면(過而不改) 그것이 곧 잘못이다”(是謂過矣) 같은 말은 요즘 역사 교과서를 왜곡시키는 일본에 대해 꼭 해주고 싶은 공자의 명언이다.

이처럼 목회자들이 논어를 읽으려 할 때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중간 중간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도 유교 전통이 강한 농촌 지역에서 목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논어 읽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부터는 대학과 중용을 각각 한차례씩 할 예정임)